

-미국편-

안영모
서울신문 논설위원

미국선거는 하나의 거대한 시제다. 미국선거라고 뜨거운 한판 승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 그 뜨거운 선거열기는 울긋불긋한 축제분위기에 순화되어 멋진 정치드라마를 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4년마다 찾아오는 대통령선거와 2년마다 맞게 되는 상하양원선거를 신나는 축제기분으로 지켜본다. 그렇지만 선거 행렬을 좇아 취재전을 벌이는 각종 미디어의 종사자들은 그 축제 속의 한가한 관람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사건을 좇아 동분서주하기는 어느 나라 기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신문·통신·TV·각종 잡지 등 뉴스 매체들의 왕국인 미국에선 취재경쟁이 더한층 치열할 수밖에 없다.

후보의 모든 것을 벗겨라

선거열풍은 본선거 실시 1년 반 전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대통령 후보군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면서 각종 뉴스미디어의 정치·선거담당 기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 서울대 문리대

□ 서울신문 주미특파원 역임.

□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

어느 선거 때나 선수를 치고 나오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 대개는 비집권당내 후보일 때가 많다. 88년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게리 하트가 금년 초 기자회견을 갖고 대망의 백악관 경주에 도전을 선언했다. 하트의 뒤를 이어 민주·공화 양당과 무소속 후보군 약 20여명이 자언타언 형식으로 등장했다. 물론 이 숫자는 하트의 도중 하차등에 영향 받아 더욱 늘어날 것이 명백한데, 지난 84년 선거 시에는 무려 2백 여 명이 백악관 주인이 돼 보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기자들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바빠진다. 후보선언의 회견취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선거취재에 노련한 기자일수록 주목 받는 후보의 전신을 벗기는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기본적으로 그의 정치 기록상에 나타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외교·국방정책, 사회복지정책, 세금문제 등에 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추적한다. 만약 그가 상하양원이나 주정부 관계자였다면 이들 문제들에 대한 발언 표결기록을 살살이 뒤진다. 뉴욕 타임즈 같은 유태계 신문은 그 후보의 중동전 입장을 면밀히 분석한다. 여성 잡지에선 ERA(여성동등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기록별로 추적 한다. 하트의 불행도 따지고 보면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하트가 백악관레이스선언을 안 했다면 그의 여성 편력이 문제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84년 선거 당시 먼데일과 민주당 후보공천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때 느닷없이 이름과 사인을 바꾸어 사용했다는 과거의 「행위」가 폭로된 것도 미디어의 추적취재에 잡혔기 때문이다(일설에는 하트에 대한 몰염치성행위폭로가 미 정보당국의 고도의 술책에 따른 것이란 추측도 있기는 하다). 미국에는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없다. 병원의 출생증명, 학력기록, 운전면허증 등이 신분을 밝히는 증빙서류가 된다. 공직을 맡는다거나 범법자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1차적으로 세금납입관계를 조사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단위나 주정부 및 중앙정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과거의 신분확인, 세금납입관계, 재산상태 등이 취재 기자들의 표적이 된다. 후보의 건강기록에 관해서도 미디어의 추적은 철저하다. 정신질환이나 마약기록이 발견되면 그 후보의 정치생명은 끝장난다. 음주운전기록도 치명적이다. 대개의 경우 대통령 후보는 공인의사의 건강진단서, 회계사가 공증한 재산현황을 미리 공개한다. 여기에 한 치의 하자가 발견되면 후보의 공신력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며, 이른바 「조사보도」에 의한 폭로로 발전한다. 위선과 위증은 모든 이의 파멸을 뜻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미국 언론은 한치의 유예나 인정이 없다. 이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것처럼 정치인(후보)의 모든 것을 벗겨도 되는 것인가. 흔히 일컫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떻게 된 것인가. 폭로성 조사보도는 명예훼손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해 「공인」에 관한 한 사실(facts)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 보도는 행정적으로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미국의 불문율이다. 하트의 예가 그렇다.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들이 전화제보에 따라 워싱턴 소재 그의 타운하우스를 24시간 감시하며 출입자를 은밀히 체크하고, 드디어 도나 라이스 양과의 밀애에 관해 특종 보도한 사례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였다. 언론계 일각에서조차 그런 식의 잠입보도 행위가 몰염치한 행위라는 자가비판을 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이 동지를 명예훼손죄로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하트 자신이 전직

상원의원이며, 대통령지명전에 나선 민주당내 거물 정치인이라는 「공인」 신분 때문이었다. 1976년 민주당지명전에 나섰던 머스키 의원의 경우도 유사하다. 예선기간 중 한 기자회견석상에서 그는 집요한 기자들 질문에 몰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울어버린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언론들은 「머스키의 낙루」나 「눈물로 얼룩진 예선」 이니하고 빈정대면서 「미국인은 나약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고 호된 비판을 가했다. 결국 머스키는 예선에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미국언론이 공인에 대해 항상 매정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자세는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의 솔한 여성편력은 상원출입기자나 백악관출입기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FBI 국장인 후버가 그런 여성스캔들을 담보로 잡아 케네디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 기자들은 알고 있었다 하나 그런 사실은 활자화되지 않았다. 케네디에 건 미국인의 기대와 희망이 컸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언론은 애국심에 더욱 주목하고 있을 때였다. 언론의 보도(?)는 존슨의 월남전 개입에 대한 미국내 반전진보세력의 대두에서 시작돼, 닉슨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이르러 무너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모든 공직자, 특히 권력을 장악한 고위관료나 정치인에 대해선 엄격한 「워치 독(watch dog)」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언론의 자각이었으며, 미국인 들도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거의 무제한의 언론자유, 특히 공인에 대한 보도자유는 기본적으로 미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한다. 종교·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병통치」격의 이 조문은 이렇다. 「합중국 의회는 종교의 수립과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온하게 집회하고 교통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언론송사가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 수정헌법 제 1 조를 적용하여 대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정계의 섯별을 창조하는 언론들

11월 선거를 목표로 민주·공화 양당은 2월부터 본격적인 당내경선에 돌입한다. 이른바 「밴드웨곤(bandwagon)」의 시작이다 대통령 후보군들은 주별로 실시되는 예비선거에 나선다. 신문 방송사마다 선거전담 취재진을 구성, 유망 후보별로 수행취재기자를 파견한다. 고정 배치된 취재기자는 후보와 침식을 같이하며 움직인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선 수행 기자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할 경우도 있는데, 물론 경비는 항상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자들이 지불한다 전세비행기 탑승도 마찬가지다. 공짜취재는 없다. 2월 20일을 전후해서 수백명의 취재 기자들은 미 중북부 아이오와주로 모인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공화 양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아이오와 코커스」로 불리는 행사다 일반유권자는

참가하지 않는, 순전히 당원들만 모여서 투표하는 행사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예비선거전의 첫 서막인 까닭에 취재진의 관심도는 지대하다. 무명의 다크호스가 떠오르는 별로 등장한 사례가 흔히 나오기 때문이다. 1976년 선거 당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지미 카터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헨리 잭슨, 휴버트 험프리 등 민주당내 거물들을 제치고 샷별처럼 등장한 게 그 한 예이다. 이 같은 「코커스」 외에 전주민들이 참가하는 진짜 예비선거가 있다. 「프라이머리 일렉션」으로 통칭되는 주별 행사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주의회가 결정한다. 대충 40개 주내외가 「프라이머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면 기자들은 뉴햄프셔주로 집결한다. 첫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곳이다. 미동북부에 위치한 유권자 백만의 이작은 지역은 2월 24일을 전후하여 유권자 전원이 차기 대통령을 「예비」 선출한다. 당소속에 관계없이 민주·공화 혹은 무소속 후보에 표를 던질 수 있다 뉴햄프셔예선이 「아이오와 코커스」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전주민의 의사가 표본적으로 집약된다는 점 때문이다. 미선거사상 뉴햄프셔예선전에서 이긴 각 당 후보자가 전당대회에서 지명을 따낸다는 전통적 기록 때문에 후보군이나 신문기자 등의 이 지역 예선에 쏟는 관심은 지대하다. 뉴햄프셔 예선기간 중 각 당 후보들은 공공집회장소와 상가를 돌며 득표 작전에 나선다. 후보별 지지자들은 각종 단합대회를 열어 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 지역 TV와 라디오에선 후보 선전 광고가 나온다. 이곳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끄는 선거이벤트는 후보자간의 토론 대결이다. 이 토론대결은 민주·공화당의 자당후보끼리의 접전이다. 1980년엔 공화당 쪽만 실시해 레이건과 부시후보가 대결했다. 1984년엔 민주당의 먼데일과 하트 토론만 있었다. 어느 한 당에서 다수후보가 모두 나와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다. 뉴햄프셔예선에 후보자들이 꼭 나서야 한다는 법은 없다. 초반 선거에 자신 없는 후보는 뉴햄프셔예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 또 이 예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3월중 실시되는 매사추세츠 등 5개 주 예선과 5월의 텍사스 등 14개 주 그리고 6월의 캘리포니아 등 대의원수가 많은 지역에서 마지막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주요지역의 예선을 언론들은 그 실시 요일에 따라 「수퍼 화요일」이니 혹은 「수퍼 토요일」 등으로 명칭하며 취재관심을 쏟는다. 일반적으로 미 언론들은 매사추세츠 예선이 끝나면 특정후보의 우세를 점치면서 집중적인 취재를 통해 정치조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기관이나 특수기관 등이 주관하는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돼 후보군을 웃기고 울린다. 여론조사는 후보자인기도를 가늠하는 현대 선거전의 총아다. 갤럽, 해리스 등 전문여론조사기관 이외에 ABC-TV와 뉴욕타임즈, CBS-TV와 워싱턴 포스트 등 방송·인쇄매체인 연합여론조사도 권위를 자랑한다 후보들이나 취재 기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민감한 것은 역대 선거에서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다는 기록 때문이다 갤럽의 경우, 1972년 선거에서 닉슨(공)과 백거번(민)의 인기를 평균 60대 40으로, 1976년 당시 카터(민)와 포드(공)는 55대 45로, 1980년때에도 레이건(공)과 카터(민)의 인기를 55대 45로 집계·발표했다. 갤럽은 월별로 인기를 측정 공표하는데, 1984년 선거때는 레이건(공)이 먼데일(민)을 60대 40 정도로 줄곧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론도는 본선거에서 비교적 적중됐다. 예선결과와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놓고 취재 기자들은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지명자를 점찍고 그에 관해 집중 보도한다. 유권자들은 각종 보도를 통해 특정후보의 정책계획과

인물의 됨됨이를 저울질한다. 말하자면 후보자들의 「모든 것」이 이 예선기간 동안 적나라하게 벗겨진다. 예선의 중요성에 관한 제임스 브라이스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정당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 훌륭한 후보다.」 그러나 언론은 훌륭한 대통령의 발굴에 벌써부터 주목하는 게 통례다.

미국적치의 멋이 출렁이는 지명대회장

캘리포니아주 예선이 끝나는 6월 초면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대충 결판이 난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서 미결정표로 남은 미작심 대의원들의 향배가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세를 뒤엎는 경우는 흔치 않다. 드디어 민주·공화 양당의 지명전당대회가 열리면 온 미디어는 취재전에 인력과 돈을 쏟아 붓는다. 줄잡아 1만 여 명의 내외신 보도진이 양당 전당대회장에 몰린다. 소련의 모스크바 TV나 타스 통신 등 공산권 기자들도 떼거리로 몰려와 미국식 자본주의 정치 쇼를 흥미롭게 취재한다. 환호와 박수, 풍선과 피키프의 물결 속에서 엮어지는 지명대회는 정치축제의 하이라이트임에 분명하다. 이 「위대한 순간」을 취재하는 미디어의 총아는 역시 텔레비전이다. ABC·CBS·NBC 등 3대 TV와 CNN 등 특수 TV 방송들은 대회 장안에 방송본부를 차려놓고 전당대회의 이 모습, 저 모습을 생동감 있게 생중계한다. 각 방송의 간판 앵커들이 방송본부에 앉아 구석구석 포진한 카메라를 호출한다. CBS의 월터크롱카이트, 닐 레더, ABC의 레이놀즈 바바라월터즈, NBC의 존 찬슬러 등이 양당의 역대 지명대회 취재를 지휘한 명 앵커들이다. 지명대회에서의 TV 취재모습을 1980년 공화당전당대회 현장을 통해 살펴보자. 당시 7~8명의 공화당내 후보군을 물리치고 69세의 노정객 로널드 레이건은 예비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등장,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를 무난히 확보해 놓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공화당전당대회는 민주당소속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에 대항하여 백악관을 탈환하는 거상들(공화당의 심벌은 코끼리다)의 단합대회였으며, 이란인질과 아프칸 사태 등으로 인한 대의적 좌절감과 경제불황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던 미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레이건의 선택을 심각히 검토하는 기회로 생각되었다. 취재기자들의 관심은 레이건의 지명수락연설내용이나 정강정책에 있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예비선거를 통해 충분히 개진됐기 때문이다. 누구를 부통령 런닝 메이트로 택하느냐가 관심의 표적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3대 TV는 숨가쁜 현장을 생중계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당대회가 이틀째로 접어든 날, 밤 9시 30분이 조금 넘어 대회장을 누비던 CBS 앵커 닐 레더가 방송본부에 있는 월터 크롱카이트를 급히 불러냈다 「월터, 오늘 하루종일 주요당직자를 접촉한데 이어 바로 몇분 전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뉴스다. 제럴드 포드전 대통령이 레이건의 요청에 따라 부통령 런닝 메이트로 나서기로 최종 결심했다.」 레이건-포드팀 구성 「가능성」을 이보다 앞서 특종보도 한 사람은 크롱카이트였다.

그는 래더의 「확인」 보도가 있기 30 시간 전에 포드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부통령출마 「의사」의 일면을 이미 보도한 바 있었던 것이다. 포드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프라이드는 문제될 게 없다. ...레이건은 기념식이나 참석하는 의전담당 부통령이 아니라 한 몫을 담당하는 부통령자리를 제의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의 러닝메이트 요청을 수락했다는 건 아니다.」 크롱카이트는 자신의 특종이 확인됐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미소까지 머금으며 그 특유의 멋진 억양으로 논평했다. 「레이건-포드 러닝메이트는 미선거사상 초유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꿈의 티켓>을 우리는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것이다.」 ABC-TV, NBC-TV도 곧 뒤이어 포드등장을 보도했다. 예선초반전에서 레이건과 백중지세로 접전하다 후반에서 물러난 조지 부시나 공화당 상원의 원내 리더인 하워드베이커는 취재초점에서 완전히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밤 11 시가 조금 넘어 장내 대의원들, 취재 기자들, TV를 통해 현장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꿈의 티켓」에 몰두해 있을 때, ABC의 한 일선기자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외쳐댔다. 「부통령후보자는 부시다 포드 옹립은 실패했다. 렉살트 상원의원이 최종 확인한 뉴스다. 다시 전하겠다. 레이건의 러닝 메이트는 부시로 결판났다.」 두 번 세 번 그는 외쳐댔다. 결과적으로 러닝 메이트 찬은 ABC 특종으로 낙착됐다. 새벽 0시 30 분께 포럼에 올라선 레이건은 선언했다. 「나의 러닝메이트로 여러분에게 이름이 익히 알려진 <예비선거후보자> 한 분을 추천코자 한다.」 대의원들은 그게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예선에서 레이건의 뒤를 바짝 쫓은 부시를 말함이었다. 텍사스 등지의 부시 지지파 대의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터뜨리며 부시 피키트를 치켜들었다. 「그렇다. 조지 부시를 추천하겠다」고 레이건은 결론짓고 대회장을 떠났다 「<꿈의 티켓>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스릴넘치는 정치 드라마였음에 틀림없다.」 CBS-TV는 크롱카이트의 논평을 마감으로 자정의 현장중계를 마쳤다.

권위를 자랑하는 정치 칼럼니스트의 논평

1950년대 이후 지명전당대회에서 선두 후보가 패퇴하고 제 3의 인물이 지명을 획득한 예는 없었다. 그 이전에는 더러 예상 밖의 이변이 일어난 적도 있다. 1940년 공화당 지명대회 때의 일이다. 당시 예선과정에서 로버트 태프트와 토마스 듀이는 거의 백중지세로 선두를 다투면서 지명전에 나섰다. 두 후보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에 실패했다. 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2차 투표 때부터는 전 대의원이 예선 당시 공약한 특정후보 지지에서 벗어나 본인 희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결국 1940년 대회에선 각축전을 편 양 후보 대신 웬델 위키라는 제 3자가 6차 투표에서 선출 되는 이변을 낳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지명전 취재에 나선 기자들은 온갖 기량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동원하여 어떤 후보가 유력시되고 있는지를 보도한다. 실제로 권위있는 정치 칼럼니스트나 노련한 취재 기자들은 전당대회장 내부보다는 후보군과 그 참모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호텔등에서 막후의 움직임을 조용히 점검하며 정확한 예고와 논평을 준비한다. 뉴욕타임즈의 제임스 레스턴, 워싱턴 포스트지의 데이비드 브로더, 칼럼니스트인 조지 월, 로버트 노박 등은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 자체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가, 그리고 그는 지금의 미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상인가를 벌써 이때부터 논평하기 시작한다. 대개 7~8 월 사이 양당 전당대회에서 각기 후보지명전이 끝나면 본격적인 전국순회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기자들도 후보의 밴드웨곤을 따라 11 월초까지 강행 취재전에 나선다. 옛날의 미국대통령선거 양상은 지금과 무척 상이 했던 모양이다. 지명을 받은 후보는 그날부터 사무실이나 자택에 머물고 그 지지자들이 방방곡곡을 돌며 대행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1860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관례에 따라 한번도 선거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적수인 스테픈 더글라스는 전국을 누비며 유세행각에 나섰다. 그러자 신문들은 일제히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후보자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색다른 짓」이라며 비난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논평이었다. 선거방법도 나날이 변해감에 따라 선거 취재도 이에 맞춰 인원·예산 기동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재출마했을 경우 각 미디어는 백악관출입기자와 정당출입기자 및 보조요원을 수행시킨다. 대통령이 지방유세를 나갈 때면 백악관공보실은 교통방법(버스·비행기 등), 인원제한, 교통요금 등을 기자실에 게시하고 취재희망자의 등록을 공고한다. 대개 백악관출입기자에 우선권이 인정되나 먼저 등록한 사람을 우대하는 일반원칙을 항상 적용한다. 백악관출입증을 교부 받은 외국특파원도 대통령의 밴드웨곤에 참가 취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락에 영향 미치는 TV 토론

텔레비전은 미국대통령선거의 총아다. 선거운동에 미치는 TV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2억의 미국인들은 자기집 응접실에 편안히 앉아서 후보들의 선거연설을 듣는다. 미국처럼 광대한 국토에서 벌어지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은 TV 밖에 없다. 후보들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밤 TV 뉴스에 방송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한다. TV의 일방취재에 만족하지 않고 후보자들은 유료 TV 광고에 나선다. 30초의 광고에 수만 달러가 드는 TV 광고료와 기타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각 정당은 시민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는다. 이 헌금의 액수는 곧 인기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무제한의 헌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자금 지원법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를 단일 최대의 선거자금제공자로 만들므로써 일반인의 과대한 헌금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시켰다. 즉 개인헌금은 1천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각 후보의

가족재산 중 한도액을 5만 달러로 묶어 놓았다. 본선거까지 합쳐 1984년 선거에선 총 3억달러 이상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이 자금의 모금내역과 사용처 명세서는 연방정부 선거관리위에 제출되고 일반에 공표된다. 이처럼 과대한 선거자금의 살포가 선거 직후 일부 언론에 의해 분석 비판되고는 있지만, 국민적 반대는 아직 없다. 선거 취재 기자들은 정치헌금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해서도 흥미를 느낀다. 헌금규정에 어긋난 사례나 사용내역에 의혹이 발견되면 큰 정치스캔들로 문제된다. 카터 대통령 재임시, 연방 예산 국장직에 있던 랜스의 금융스캔들도 선거자금과 관련된 의혹에서 일어난 것이다. 랜스가 조지아주 은행책임자로 있을 때 카터 농장에 융자해준 돈이 불법이었으며, 그 돈이 카터 예산에 동원됐다는 혐의가 제기, 기자들로부터 집중추궁을 받았다. 결국 랜스 사임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것처럼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추적취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선에서도 같은 당 후보자들끼리 정책대결을 벌일 경우도 있으나, 소속당의 기본정책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큰 이견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당 후보가 지명되고부터는 정책대결이 본격화된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진보적 정책을, 공화당은 보수성향의 정책을 제시한다. 1980년 선거 당시 카터와 레이건 사이에 「전쟁논쟁」이 야기됐다. 카터쪽에서 레이건을 「전쟁광」이라고 선제공격을 편 데서 발단됐다. 이에 레이건은 카터의 허약한 대외정책을 비난하고 그 실례로 이란사태와 아프간 사태를 들었다. 이 같은 정책대결은 전통적으로 미 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1 대 1 토론회」에서 극치를 이룬다. 사회자와 패널리스트(질문자)로 언론인들이 나선다. 같은 질문을 양당 후보에 던져 정책비전, 언변, 매너 등을 비교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분간 최종 스테이트먼트 발표기회를 준다. 이 광경이 3대 TV에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이다. 투표일(11월 첫째 화요일)을 3~4일 앞두고 벌어지는 이 마지막 토론대결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표의 4%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부동표를 잡는 결정적 계기임에 틀림없다. 1960년 케네디가 닉슨을 낙다운 시킨 것이나 1980년 레이건이 카터를 물리친 결정적 이벤트로 이 TV 토론을 지적하는 정치학자들이 많다.

유세 청중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선거에선 대규모 청중이 동원된 선거유세는 없다. 1950년대 트루만 대통령 당시까지 전국을 누빈 「휘슬 스톱 캠페인」(열차를 타고 주요지방의 철도역내에서 청중을 향해 뿜던 선거운동)이 있었으나 TV라는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부터 그 같은 낭만적 유세는 사라졌다. 각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되 당원대회나 특정 이해집단(상공회의소등)의 초청연사로 나가 연설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유세를 대신한다. 그런 행사들은 예외 없이 지방 언론기관과 중앙의 수행기자단에 의해 빠짐없이 보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모임의 청중 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크게는 몇 천 명에서 작게는 수십 명의 청중을 상대할 수 있다. 후보들은 시골 국민학교나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로부터 온갖 질문들, 특히 비정치적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장면을 TV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토론회일수록 그 후보의 인생관이나 됨됨이가 구김 없이 표출되는 기회가 되곤 한다. 따라서 선거유세를 보도하는 데 있어 청중숫자는 생략되는 게 보통이다. 같은 날 A 후보가 갑지에서, B 후보가 을지에서 연설했다 해서 청중수로 그 인기를 가늠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로 생각된다. 드디어 11 월초 선거일이 되면 언론기관은 초비상상태에 돌입한다. 이때도 역시 매체 성격상 TV 활약은 눈부시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투표시간부터 지역에 따라 밤 9시(투표소가 먼 산간지역)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3대 TV는 뉴스시간마다 투표진행상황과 잠정투표율 등을 보도한다. 미국선거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3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시간대로 인해 서부지역에선 한창 투표가 진행중인 때, 동부지역에선 개표가 시작되어 선거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동부지역의 대도시투표소는 저녁 7시 투표를 마감하고 곧바로 개표작업에 들어간다. 투·개표가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웬만한 투표구는 1시간 내 개표가 완료된다. 이때 서부시간은 오후 5시, 투표소마다 유권자행렬이 서 있을 때다. 투표마감 저녁 7시 전에 서부 유권자들은 동부쪽 개표상황을 TV나 라디오를 통해 대충 듣고 투표에 나설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미확정 부동표다. A라는 사람은 동부에서 우세를 보인 갑 후보를 찍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약세의 을후보에 동정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때문에 미의회에선 미 전역의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언론기관이 개표결과를 중간발표치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때 그때의 선거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언론 매체들에 의해 선거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은 대개 투표당일 밤 10시 전후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컴퓨터가 투표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표시간은 극히 단축된다. 또 선거의 판가름은 선거인단수가 큰 동부지역의 결과만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뉴욕(선거인단수.41) 펜실바니아(27), 오하이오(25), 미시간(21), 일리노이(26), 텍사스(26) 등 20명 이상의 선거인단수를 갖고 있는 대주들은 동부나 중부지대에 위치해 있다. 45명의 최대 선거인단을 가진 캘리포니아만 서부에 위치해 있다. 언론기관의 당락예측보도는 비교적 정확하다. 그날의 투표율과 투표소 분위기 등이 예상보도의 근거가 된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른바 흑인 등의 블루컬러계층이 투표소로 쏟아져 나오면 영락없이 민주당후보를 찍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측은 공휴일로 지정된 투표일에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 TV 방송은 저녁 7시 정규뉴스부터 본격적인 선거보도에 들어가 10시 전후가 되면 당락을 점친다. 물론 투표가 겨우 끝난 서부지역의 결과를 「변수」로 남겨두는 조건을 달기는 하지만, 예상의 모험을 즐겨 시도한다. 1950년대, 1960년대 이후 대오보는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트루먼과 듀이의 대접전 당시 시카고 트리뷴씨가 1면 전단 헤드라인으로 듀이 당선을 보도한 사례는 미 언론사상의 최대 오보로 기록돼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인쇄매체의 경우 호외를 발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뿐 아니라 케네디암살, 레이건 피격 등 대사건이 발생해도 신문호외는

발행되지 않는다. 긴박한 뉴스전달은 방송매체가 충분히 담당하기 때문이다. 인쇄매체는 사건의 상보와 해설로 TV가 해내지 못하는 보도부분을 커버한다.

유권자 의식수준과 언론의 영향력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미디어의 관행이 있다. 투표 1 주일을 전후하여 특정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일이다. 특히 인쇄매체는 사실란을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 진보계 신문은 주로 민주당후보를 보수계 신문은 공화당후보를 지지한다. 뉴욕타임즈 · 워싱턴 포스트 등이 카터를, 워싱턴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레이건을 지지하는 식이다. 1980년 선거 당시 뉴욕타임즈는 선거 3일 전에 카터지지 사실을 실었는데 리드는 이렇게 시작된다. 「만약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고 '카터냐 레이건이냐' 하고 다그친다면, 시계를 벗어줄지언정 답변할 처지가 못될 것이다.」 이처럼 백중지세의 형상을 설명한 뒤 결론부문에 와서 「그러나 우리 (뉴욕타임즈)는 카터를 지지한다」고 썼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비록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영향력있는 신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실을 썼다 해서 그 후보가 꼭 당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면 특정신문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 해서 다른 후보로부터 「선거에 미친 부당한 영향」을 이유로 제소당하는 사태도 없다 미국시민의 의식의 깊이를 말해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